

인류  
12주:분실물

누가복음 15:1-32

1.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.
2.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. "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,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."
3.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.
4. "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,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,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,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?"
5. 찾으면,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
6. 집으로 돌아와서,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, '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.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' 하고 말할 것이다.
7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,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,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."
8. "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닢이 있는데,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, 등불을 켜고, 온 집안을 쓸며,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?"
9. 그래서 찾으면,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말하기를 '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.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' 할 것이다.
10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,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."
11. 예수께서 말씀하셨다. "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
12.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'아버지,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' 하였다.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.
13.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,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,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.
14.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,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,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.

15.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, 몸을 위탁하였다.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[돼지](#)를 치게 하였다.
16. 그는 [돼지](#)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,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.
17.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, 이렇게 말하였다. '내 [아버지](#)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,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.'
18. 내가 일어나 [아버지](#)에게 돌아가서,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. [아버지](#), 내가 [하늘](#)과 [아버지](#)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.
19.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,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.'
20. 그는 일어나서, [아버지](#)에게로 갔다.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, 그의 [아버지](#)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,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, 입을 맞추었다.
21. 아들이 [아버지](#)에게 말하였다. '[아버지](#), 내가 [하늘](#)과 [아버지](#)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. 이제부터 나는 [아버지](#)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.'
22. 그러나 [아버지](#)는 종들에게 말하였다. '어서,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, 그에게 입히고, 손에 반지를 끼우고, 발에 신을 신겨라.'
23. 그리고 살진 [송아지](#)를 끌어내다가 잡아라. 우리가 먹고 즐기자.
24.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,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.'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.
25.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,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,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,
26. 종 하나를 불러서, 무슨 일인지를 물어 보았다.
27.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. '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.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, 주인 어른께서 살진 [송아지](#)를 잡으셨습니다.'
28. 큰 아들은 화가 나서,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. [아버지](#)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.
29. 그러나 그는 [아버지](#)에게 대답하였다. '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[아버지](#)를 섬기고 있고, [아버지](#)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, 나에게서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, [염소](#)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.'
30.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 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, 그를 위해서는 살진 [송아지](#)를 잡으셨습니다.'

31. [아버지](#)가 그에게 말하였다. '얘야,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.'
32.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,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,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."